청년정책사업의 효과 분석

강은정*, 임응순*, 장종남*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e-mail:esl96@ctp.or.kr

The Effect of the Youth Policy Project

Eun-Jeong Kang*, Eungsoon Lim**, Jong-Nam Jang*
*Business Support Division, Chungnam Techno Park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한 기업에 대하여 매출액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기업에서의 고정비용(Fixed Cost)인 인건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에서는 R&D개발 등 재원을 다른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2018년대비 2020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0%이상의 매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출의 증가가 동 지원사업의 효과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전체의 효과 중에 일부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청년정책사업은 기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 서론

중앙정부에서는 출산률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사회여러분야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를 펼치고 있다. 출산률의 하락은 곧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곧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반대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60대가 노인이었다고하면 현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인하여, 노동시장에서는 신규로 유입되는 청년은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나가야하는 노년층은 나가지 않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동의 수요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에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함에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게된다 .

또한 ICT의 발전으로 인하여 청년들에게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청년창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지원 인프라 및 실적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의 창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 34개를 선정하여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1].

또한 청년 대상 지원정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로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근속하면 정부가 현금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2. 창업이란

2.1 창업의 정의

창업은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진다[2], 창업에 대한 법률적 의미 및 정의를 찾아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창업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원, 노동, 원재료 및 자산을 결합시켜 이전보다 가치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한편으로는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한 종류의 창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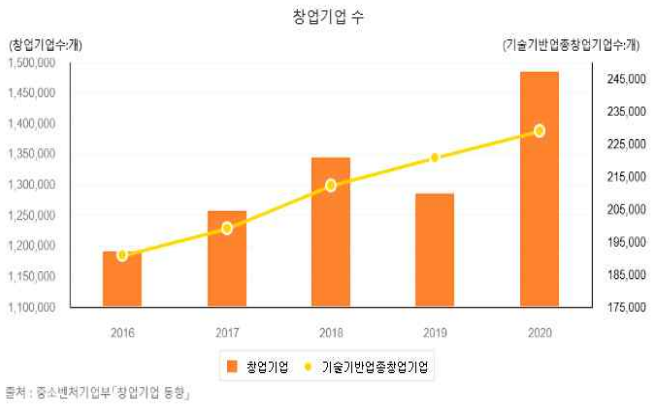
이에따라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설립조건의 완화, 창업과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3. 창업현황

3.1 창업기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484,667개사가 창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개인기업은 1,361,362개사로 91.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99,408개사로 15.5%가 증가한 수치이다.

기술기반창업업종의 경우 228,949개사로 전체 중에 15.4%로 크지 않은 수치이다. 즉 전체 창업기업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의 창업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창업기업 수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39세 이하의 경우 490,512개사이며, 이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이다. 아직은 40~50대의 창업기업의 수가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의 경우 58,116개사로 전체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역별 기업수 및 비율

지역	기업수	비율
전체	1,484,667	
서울	309,896	21%
부산	86,597	6%
대국	55,782	4%
인천	97,059	7%
광주	39,333	3%
대전	39,330	3%
울산	25,388	2%
세종	10,555	1%
경기	431,992	29%
강원	41,330	3%
충북	40,749	3%
충남	58,116	4%
전북	46,748	3%
전남	46,390	3%
경북	58,749	4%
경남	75,084	5%
제주	21,569	1%

4. 청년지원사업

4.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동 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은 유형별로 4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제1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제2유형은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3유형은 “민간취업연계형”으로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하는 것이다. 제4유형은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비대면·디지털 분야 접근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

2021년의 경우 총 26,28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유형은 14,821명, 2유형은 2,777명, 3유형은 1,690명, 4유형은 7,000명이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국비 235,003백

만원이면 나머지는 지방비 매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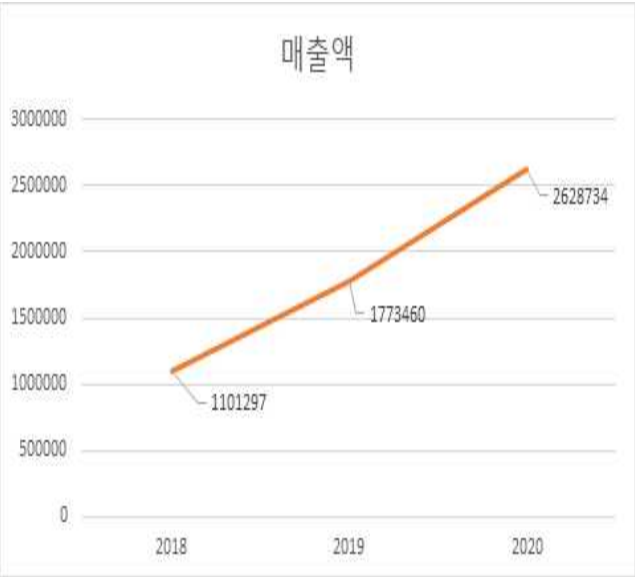
청년의 기준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이며, 고용상태는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이며, 지역요건으로는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중 충남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수행하였다. 사업명은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지원사업”으로 총 196명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2년간 기업에 채용한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1년간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충남에서는 2년간 청년들을 잘 고용하여 사업을 종료한 기업들이 있다.

5. 정책효과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지원사업”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6명의 청년채용자들을 지원하였다. 이 중 2년간 중도탈락없이 동 사업을 완료한 22개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전인 2018년부터 지원을 받고 난 후인 2020년까지의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2개 기업에 대한 전체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특성상 준비기간 이후에 큰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약 30%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전체기업 매출액 변화

본 분석에서는 간단히 전체적인 매출액의 변화만을 살펴보았다.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매출이 증가한 이유를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기업들에게 고정비용(Fixed Cost)의 감소는 생산 및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곳 매출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하여 매출액 증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중소기업청, 「2015년도 창업지원사업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5호, 2015.

[2] No, J. G., I. G. Kim, and B. S. Song(2003), “Start-Up Management”, Trade & Management Publishing Co.